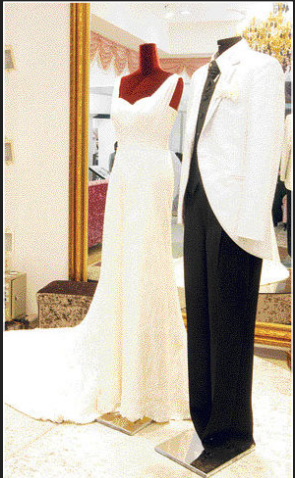


■ 웨딩드레스 트렌드

봄날의 신부 "심플하게"

아이보리... 회색... 푸른색... 신랑은 색을 입는다

남자 예복의 경우 큰 유행은 없다. 정통적으로 검정색과 진한 곤색 등이 인기며 아이보리색을 찾는 신랑도 많다.



위 아래 같은 색깔을 입는 정장 스타일이 아닌, 콤비 스타일을 찾는 신랑들도 있으며 셔츠와 베스트를 핑크 등 화려한 색깔로 맞춰 신부와 어울리는 화사함을 연출하기도 한다.

뒤포리가 있는 연미복 스타일과 양복 앞선이 앞에서 옆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닝 스타일 두가지 모두 인기가 높은 편이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쌍춘년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줄어든 숫자지만 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웨딩드레스를 찾는 예비 신부들도 늘고 있다.

2007년 봄 신부들은 어떤 웨딩드레스를 선호할까. 평생 딱 한번 입는 옷이기에 예비신부들이 가장 많은 고심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웨딩드레스다.

웨딩그룹 웨디안 이지영(35) 실장은 "올 봄에는 화사한 화이트톤의 슬림하고 심플한 스타일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도움말로 올 봄 웨딩드레스 경향과 드레스 고르는 법을 알아본다.

▲ 깨끗한 화이트로 심플하게

최근 1~2년 사이 부쩍 연예인들이 입었던 웨딩드레스에 관심을 보이는 신부들이 늘고 있다. 예비 신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드레스는 탠트림 감납주가 입었던 웨딩드레스.

여신같은 느낌의 감납주 웨딩드레스는 심플하면서도 네크라라인이 깊이 패어 있어 가슴의 곡선까지 보이며 등도 시원하게 드러나는 스타일이다. 예전에는 보통 신부들이 소화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스타일로 꼽혔으나 요즘 젊은 신부들은 과감한 노출의 드레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올 봄 웨딩드레스 트렌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백색 아이보리 등 깨끗한 화이트톤 계열이 유행이라는 점. 지난해까지만 해도 베이지, 살구빛, 골드빛 등 약간 색깔이 들어간 드레스가 인기를 모았으나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밝아진 색상의 드레스가 상한가다.

또 보통 드레스를 인위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패치를 집어넣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몸매를 드러내 주는 슬림 라인인 유행이다. 속치마를 입지 않고 몸의 실루엣을 그대로 살려주는 게 특징.

원단의 경우 예년에는 공단이 유행이었지만 올해는 하늘하늘한 쉬폰과 실크 공단 계열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스팽글이나 비즈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깔끔하고 심플한 스타일의 옷도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드레스 뒷자락(트레이)은 1m 정도 길지 않은 게 유행이다. 하객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뒷모습일

몸매 드러내 주는 슬림라인 유행 색상 화이트톤으로 한결 밝아져 평범한 신부 풍성하고 화사하게

때가 많기 때문에 우아한 뒷모습을 연출하려는 신부들은 따로 트레인을 제작해 붙이기도 한다.

▲ 얼굴형과 네크라라인을 고민하라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 가장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은 얼굴형과 네크라라인의 어울림이다.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드레스를 고르는 것도 필수. 복부 부분은 부케로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신경이 덜 쓰이는 편이지만 어깨가 넓거나 팔뚝살이 많은 경우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드레스를 고르는 게 필요하다.

보통 팔뚝이 두꺼운 경우 소매가 있는 스타일이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이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고 어깨 넓이 등 자신의 신체 전체를 파악해 적당한 드레스를 고르는 게 현명하다.

옆으로 넓은 라운드형 네크라라인의 경우 어깨가 넓은 사람은 피해야 할 스타일이며 흘러내리는 어깨가 넓고 팔뚝이 두꺼운 사람에게 적합하다. 얼굴이 화려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은 장식이 별로 없는 심플한 드레스가 어울리지만 얼굴이 다소 평범한 신부는 특별한 날이니 만큼 조금 화려하고 풍성한 드레스를 입어 화사함을 연출하는 것도 요령이다.

헤어스타일의 경우 우아한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선택할 때는 단아함이 돋보이는 업스타일 머리를 선호한다. 이때 신랑과 신부의 키와 분위기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머리 높이와 부케 위치 등을 결정하는 게 좋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올봄에는 목선이 깊게 팬 심플한 스타일의 웨딩드레스가 유행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진촬영협조 = 웨딩그룹웨디안 www.weddiann.com

■ 대학 새내기 메이크업 이렇게



대학 새내기들은 짙은 화장보다는 한뼘 안한듯 투명하게 화장하는 게 어울린다.

한뼘 안한듯 가볍고 투명하게 화장품은 수분타입 촉촉하게

대학 입학의 앞둔 새내기들. 화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는 시기다.

하지만 아직 피부가 어리고 여러 만큼 화장품을 잘못 선택하거나 피부 관리를 잘못할 경우 심각한 피부 고민에 빠질 수 있다.

▲ 메이크업보다 중요한 것은 클렌징 매일 분비되는 피지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질을 피부에 쉽게 밀착시켜 피부 더러움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저녁에는 꼼꼼한 세안이 필요하다.

우선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로션으로 30초 정도 마사지를 피지, 메이크업 등 유성의 더러움을 제거해 준다. 이후 클렌징 폼의 부드러운 거품을 이용해 더러움을 맑끔하게 제거한다.

▲ 목은 각질 제거 건조한 환경, 수분 준비로 인한 피로, 찬바람 등의 영향으로 피부 표면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상태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각질 관리가 필요하다.

세안 후 스킨 타일을 5분 정도 피부에 올려 두터워진 각질을 유연하게 해준 뒤 물기가 약간 남은 상태에서 스크럽을 이용해 1~2분 정도 피부결 방향으로 부드러운 문질러 주고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면 된다. 각질 제거 후에는 충분히 보습을 해주어야 한다.

▲ 충분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 건조한 피부와 피지의 분비가 왕성해 트러블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분 크림처럼 가벼운 수분 타입의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 크림을 빼먹지 말고 외출 30분 전에 꼼꼼하게 발라 주는 것이 좋다.

▲ 메이크업은 투명하게 대학 새내기들은 유행에 따라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젊음의 신선함을 살릴 수 있도록 한뼘 안한듯 투명하게 화장하는 것이 어울린다. 우선 메이크업 베이스로 피부보정을 해준 뒤 여분의 피지를 흡착해 번들거림을 막는다.

파우더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피부결 방향으로 발라줘 가볍고 투명한 느낌을 피부 표면에 주면, 얼굴은 핑크나 오렌지 계열의 립글로스를 이용해 촉촉하게 표현한다. 볼에는 핑크 계열의 볼터치로 생기를 준다.

▲ 메이크업은 투명하게 대학 새내기들은 유행에 따라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젊음의 신선함을 살릴 수 있도록 한뼘 안한듯 투명하게 화장하는 것이 어울린다. 우선 메이크업 베이스로 피부보정을 해준 뒤 여분의 피지를 흡착해 번들거림을 막는다.

파우더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피부결 방향으로 발라줘 가볍고 투명한 느낌을 피부 표면에 주면, 얼굴은 핑크나 오렌지 계열의 립글로스를 이용해 촉촉하게 표현한다. 볼에는 핑크 계열의 볼터치로 생기를 준다.

/연합뉴스 사진제공 = (주)이퍼퍼시픽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LC타워(주), 일가공인중개사, 민음공인중개사, 동부부동산(주), 투우드공인중개사, 다우공인중개사, and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Each ad lists contact information and property listings.